



일리가 카메라로 담은

서울 속 외국인 마을 풍경

법무부가 작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단기·장기·불법체류 포함)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 늘어난 수치로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 여명 44%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12%, 베트남 6%, 필리핀 5%, 태국 4% 등으로 조사 되었다. 단일민족이라 여겨지는 나라임에도 꽤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울에는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마을도 하나 둘 생겨나게 되었다.

다국적 거리의 이태원을 비롯해, 프랑스인들이 모여 사는 서초구 반포 4동 서래마을, 일본인들이 많은 이촌1동,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인들이 많은 광희동, 무슬림 주거지인 이태원동 등이 대표적 외국인 마을이다. 서울 한편에 자리 잡은 외국인 마을의 이국적 풍경을 찾아가 보자. 클/사진 · Willy 기자



서울의 외국인 마을은 다양한 요구에 의해 형성되었다. 서래마을과 이촌 1동에 자리 잡은 프랑스인과 일본인은 주거와 교육을 목적으로 모여 살기 시작했다. 1988서울올림픽 이전에는 낯선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생소한 도시였기에 모여 사는 것이 여로 모로 편리했을 것이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러시가 일었던 1990년대 이후 형성된 중국, 동남아, 몽골,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집단촌은 그들끼리 모여 타향살이의 설움과 외로움을 털어보자는 생계형이었다.

지구촌 거리의 원조 이태원도 서울올림픽 이후에 외국인이 대거 몰려왔는데, 한국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쇼핑 명소로 이름을 날렸고, 1997년에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여러 가지 혜택까지 누리는 지역이 되었다.

처음에는 주거 지역으로 하나 둘씩 생겨나던 서울 속 외국인 마을들은 이제 각자 명확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거주하고 소비하는 공간은 서울에서 문화를 즐기고 유행을 창조하는 '트렌드세터' 들이 애용하는 아지트로도 자리 잡았다.

9.11 테러이후 미군들의 외출이 제한되면서 이태원은 전투복 차림의 미군들 대신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필리핀 등의 외국인 노동자와 나이지리아, 가나 등지에서 온 상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자연히 미군들을 상대로 영업하던 업소와 클럽들은 대부분 제3국 외국인들을 겨냥한 식료품점, 휴대전화 대리점 등으로 바뀌었다. 클럽에서 일하는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무용수들이 주거지를 옮기면서 그 자리에 나이지리아, 가나 등에서 온 아프리카인들이 몇 해 전부터 자리를 잡았고 그들은 건물 지하층을 빌려 교회를 차리거나 물물교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한남동, 이슬람 길의 <이슬람 중앙성원>

이태원 소방서에서 오른쪽 골목에서부터 제일기획 뒤편에 이르는 이슬람 거리는 이태원에서 특히 이색적인 풍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정육점과 식당에는 'Halal' 이란 글이 적혀 있다. 이슬람식 도축법으로 잡은 고기만을 판다는 뜻이다. 이 골목에는 이슬람 종교전문 서점까지 등장할 정도로 성업 중이다. 골목에서는 독특한 향신료 냄새가 풍겨나고, 그 길을 하나같이 수염을 기른 남자와 히잡을 둘러쓴 여성들과 마주치게 된다. 이슬람의 종교와 문화, 맛이 어우러진 이 거리는 1976년 인도와 파키스탄 등 무슬림들이 모여면서 형성되었다. 언덕위에 있는 이슬람 중앙성원은 서울에 다양한 종교와 문화의 향기를 더하고 있다. 입구 중앙에는 한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라는 문구가 방문자를 반긴다. 이곳 이슬람 성원에서는 매일 여섯 차례 예배가 열리는데, 시간을 맞춰 찾아가면 신도들의 예식을 볼 수도 있다. 또한, 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진짜 제대로 만든 양고기 케밥과 아랍식 볶음밥을 맛보는 독특한 재미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한국식 입맛에 길들여진 일부 한국인들은 역겨워 하기도 한다고 이곳의 식당주방장은 말한다.



이태원 이슬람 중앙성원은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다. 또한 중앙성원 앞 '이슬람 길'에는 이슬람 전통 레스토랑, 서점, 여행사, 상점 등이 들어서 있어 이채롭다.



작은 프랑스 <서래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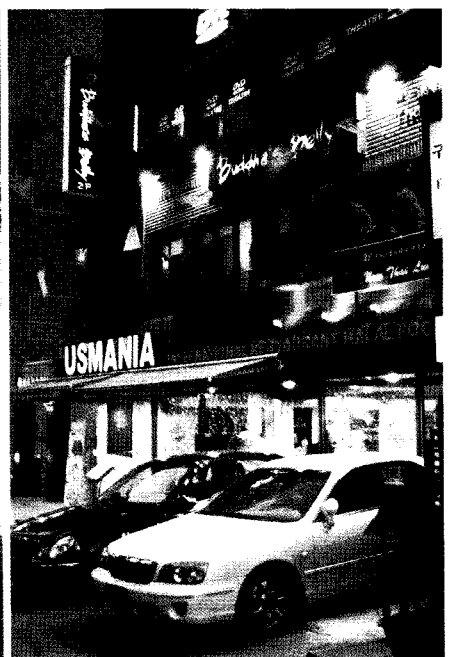
'작은 프랑스'라고 불리는 방배동의 서래마을은 아트막한 언덕을 따라 고급 빌라가 들어서 있는 길 사이로 와인샵과 베이커리, 식료품점들이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색·하얀색·파랑색을 사용한 간판을 달고 있다. 이곳엔 버스 정류장 안내판도 프랑스어와 한글이 나란히 적혀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매 안내문도 프랑스어로 적혀 있다. 또한, 베이커리와 레스토랑의 주방장이나 종업원도 프랑스인들이 많고, 마을 중심을 이루는 도로의 이름도 '몽마르뜨 길'이다. 이곳에서 만난 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의하면 몇 년전 프랑스인 영아 유기사건 이후 마을 전체가 따가운 눈총을 받자 이곳을 떠난 프랑스인들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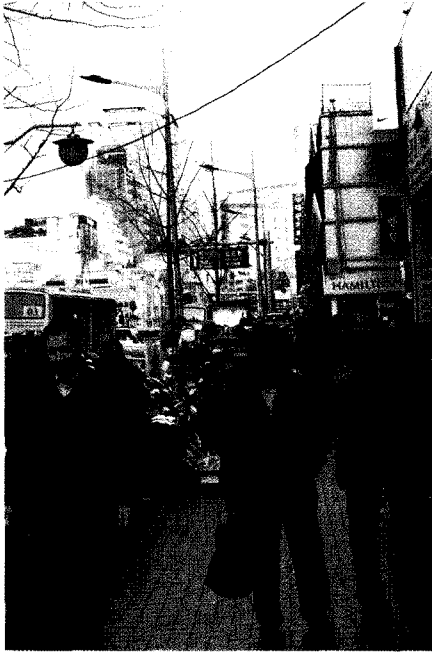
<리틀 도쿄>, 이촌 1동

서래마을이 있는 반포에서 한강을 넘어가면 만나게 되는 강북 부촌 이촌1동. 지리적으로 여의도 접근이 쉬워 연예인들이 많이 살기에 이들이 몇 번만 가도 금세 유명세를 타는 곳이기도 하다. 신용산 초등학교 앞에 자리 잡은 예쁜 카페와 각종 레스토랑의 오후 거리는 한가롭기 그지없다. 오전과 오후 학교 등교 시간에 아이들을 배웅하고 맞이하는 버스정류장 앞 일본인 아주머니들의 표정은 한국인들의 일상과 많이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이곳의 일본인 마을은 서래마을과 이촌동의 풍경에 비해 이국적인 면에선 다소 실망스런(?) 풍경이다. 그러나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등에 1000여명이 넘는 일본인이 모여 산다. 이 지역엔 일본인 전용 창구를 갖춘 은행, 일본인 어린이반을 개설한 유치원, 일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우동집과 초밥집, 100% 일본 제품만 판매하는 마트 등이 활발히 영업 중이다. 병원부

- ▶ 파키스탄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우스마니아인' mutton jalfazi라는 양고기 요리는 한국인 입맛에도 일품이다.
- ▶ 서래마을에 프랑스 국기 색으로 조성된 보도, 멀리 가로등에 한국기와 프랑스기가 나란히 걸려있다.





- 강북 부촌인 이촌1동 앞 일식집 거리, 1000여명의 일본인이 모여 살지만 걸로 드러나는 면은 많지 않다.
- 이태원은 이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러피언에서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이방인들로 주류세력이 넘어가고 있다.

터 부동산, 슈퍼마켓 주인도 일본어가 유창하고, 일본어로 예배를 보는 교회도 자리 잡고 있으니 '리틀도쿄'인 셈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촌동, 반포, 한남동등 경제사정이 좋은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부촌에 비해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연벤족, 아프리카 출신들은 서울 외곽이나 도심의 고층빌딩 뒤편에 웅색한 자리를 틀고 있다. 그나마 이들은 마을이나 타운을 형성하지 못하고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거나 일시적으로 시장을 형성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동대문은 동장 주변 몽골인 커뮤니티나, 지하철 1호선 동대문·종로구 창신동의 네팔인 마을이 있는가 하면 필리핀들은 매주 일요일 해화동 대하로를 작은 마닐라로 변신시킨다. 타갈로그어로 대화하며 고향의 과일과 채소, 햄, 담배, 생선 등을 사고파는 것이다. 이제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야하는 우리 서울·대한민국이 담고 있는 문제는 이들의 양극화 문제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부유한 국가 출신이 집중된 지역은 이색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이 모여든 곳은 우범지역으로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번호로는 인터넷 로그인등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심지어 휴대전화도 가입하기 어려운 점에 삶의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거리에 외국인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 우리의 서울. 그러나, 세계 대도시에 비하면 아직 그 숫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일본의 도쿄는 그렇다해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보다 서울의 외국인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단순히 숫자로 국제화를 논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의 적극적인 외국인 끌어안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무총리 산하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외국인 관리 정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외국인들의 거주환경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